

제품값 못 올리니...슈링크·스킵플레이션 '꼼수'

식음료 기업, 재료·인건비 상승에 용량·제품 질 낮춰 판매 정부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 소비자 권익 신장 요구할 것"

식음료업계가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제품 질을 떨어뜨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업들은 과자와 음료, 냉동식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다"라며 식음료 업계에 경고를 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지난 3월 9000원 짜리 핫도그 1봉지의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였다. 제품 무게가 500g에서 400g으로 무려 20% 줄어든 것인데, 별다른 고지 없이 양이 줄어들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영어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소비자들은 미처 자각하지 못했지만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는 다양하다.

동원F&B는 올해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줄였고 잡지 통조림 용량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맥주 묽음 제품을 1캔당 기준 375ml에서 370ml로 5ml씩 줄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작년 9월 유제품 비요프 중량을 143g에서 138g으로 줄였다.

오리온은 지난해 9월 초코바 핫브레이크 중량을 50g에서 45g으로 줄였다.

롯데월드 카스타드는 12개에서 10개로, 꼬깔콘은 72g에서 67g으로 각각 줄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킵플레이션'(skimpflation)도 득세하고 있다.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킵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기업 등이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날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올해 하반기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대폭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렌지 100% 제품의 과즙 함량은 80%로 줄였는데 제품 하단에 '오렌지과즙으로 환원 기준 80%'라고 표시했다.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이 80%인 제품은 45%로 낮아졌다. 델몬트 포도 주스 역시 과즙 함량이 내려갔다.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오랫동안 내세우던 치킨 브랜드 BBQ는 지난날

부터 튀김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로 교체했다.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해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50%의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스킵플레이션'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웨이커는 그라놀라 초코바의 코코아버터 코팅을 값싼 팜유로 대체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 세인스베리는 올리브스프레드의 올리브오일 함량을 21%에서 10%로 낮췄다. 또 다른 슈퍼마켓인 모리슨은 과카몰리 제품의 아보카도 함량을 80%에서 77%로 조정했다.

미국 디즈니랜드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1마일(1.6km)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던 트램을 중단해 탐욕스럽게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력 절감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도 이전만 못한 경우가 많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마트에서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46.6%가 '뒷사람 눈치', '조작 어려움' 등 불편을 겪었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 저항을 피해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값싼 재료로 질을 낮추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킵플레이션'에 대해선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남뉴스



16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5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전현직 광주은행장 등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제12대), 김성학(제11대), 엄종대(제8대), 고병일(제14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송종욱(제13대) 은행장.

“광주은행, 지역민 사랑받는 100년 은행 거듭나길”

창립 55주년 기념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6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5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청 간담회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강학(제11대), 김한(제12대), 송종욱(제13대) 등 전·현직 광주은행장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은행의 지난 55년을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광주은행장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 지속 및 장기불황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광주은행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지역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줄 것”을 광주은행에 당부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역대 은행장님들의 뒤를 이어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임을 가슴 속 깊이 품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5회 K-페스티벌' 개최

우수 개선 사례 공유·경연
나우리 한마당 등 행사 열려

기아 AutoLand광주(공장장 박래석)는 16일 '제5회 K-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K-페스티벌은 일반직 부서 및 개인별 우수 개선 사례 발표, 경연을 통해 임직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는 임직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K-Cube'와 조직문화 개선활동 '나우리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다.

K-Cube에서는 ▲배기팬 인버터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서브드라이브 진단키트로 수선비절감 ▲PUEV 부동액 희석 비율 조정 ▲소재 전기 계약 용량 변경 전력비 절감 ▲문화센터 샤워실 절수헤드 설치 비용절감을 주제로 사례 공유회가 진행됐다.

나우리한마당에서는 우수 파트로 선정된 6개 부서가 활동사례를 발표하면서 올해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서대항 종이가방 만들기 챔피언 결정전, 축구게임, 사격, 새총 경기, 퀴즈대회 등 미니게임과 미나카 전시회, 먹거리 마당으로 모두가 즐기는 행사로 구성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관계자는 “기아 AutoLand광주 개선사례 발표회인 K-Cube에 더욱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개최한 K-페스티벌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기아 AutoLand광주는 K-페스티벌을 임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재미를 공유하는 임직원들의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8.18(+1.51)
↑ 코스닥	811.11(+1.75)
↓ 금리(국고채 3년)	3.710(-0.034)
↓ 환율(USD)	1296.90(-3.90)

광주신세계, 수험생 대상 이벤트 풍성

이류·신발 할인...영화관람권·사은품 증정 등

광주신세계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나 접수증을 제시하면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세계 제휴 카드로 20만원 이상 결제시 CGV영화관람권 2매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결제 시 본관 지하 1층 옥각 커피 이용권(1매)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 사은행사장을 찾아 수험표와 당일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새내기 대학생을 위한 신발, 이류 할인행사도 마련됐다.

신발 브랜드 '소다'와 '루이까포즈'는 수험표 지참시 30% 할인을 제공하며, '탠디'와 '닥스구

두', '금강제화', 포뮬카멜레는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류 브랜드인 '마리떼프랑스와저버'를 비롯해 '캘빈클라인', '게스진', '보보', '툼보이' 등은 수험표 지참시 구매금액 10% 할인, 'APC', '빈플레이디스', '비이커'는 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3-6-10만원을 할인한다.

'버커쿠'와 'NBA', '펄피코'도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구매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펼쳐진다.

'LEE'와 '와릿이즌'은 15만원 이상 구매한 수험생들에게 각각 아이폰 카드지갑과 양말을 증정한다. 화장품 브랜드 '키엘'과 '헤라'는 신규 가입 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각각 울트라헤이슬 수분크림과 네일 3종 키트를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복 매장 직원이 겨울 아우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 광주점 정기세일

17일~12월 3일... 최대 70%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광주점은 브랜드별 할인행사와 다양한 사은행사로 고객 체감 할인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여성·남성·아동 등 패션 상품군에서(일부 브랜드 제외) 품목별 10-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숏패딩 등 겨울 인기 아이템을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무인양품'은 오는 21일까지 '무지워커'를 진행해 무지 패스포트 회원 대상 1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판도라'는 19일까지 판도라 베스트셀러 40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

한다.

겨울 정기세일 기간 광주점 9층에서는 다양한 상품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에스콰이어 남성화를 7만9000원, 여성화를 6만9000원에 판매하는 구두 굽일사전과 '에델코첸' 주방용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먹거리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지하1층 푸드에 비뉴에서 17일 한우와 돈육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오는 23일까지 닭강정, 소떡소떡, 아재 사리다빵을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점은 19일까지 롯데카드로 단일 브랜드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5% 상당의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주방·식기·홈데코 2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0% 상당의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캐나다구스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조달청, 영암 신흥콘크리트 방문 점검

광주지방조달청은 16일 영암군 소재한 레미콘 제조기업(주)신흥콘크리트를 방문해 품질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광주조달청은 레미콘의 원자재 상태를 확인하고 배합 비율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

광주조달청은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 이온량 품질유지 적합여부, 원자재 저장 설비 이상 유무, 미석 등 기계장치 이상 유무 등을 살폈다.

조달청은 레미콘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원자재배합표 제출 의무화·품질관리 강화로 불량제품 납품 및 유통 차단 ▲우선 납품제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교육시설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이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